

과가 먼저냐, 대학이 먼저냐

하는 질문은 원서 시준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설인문사범 vs. 연고경영

연고인문사범 vs. 서성경영

이 대표적인 떡밥이죠.

정시 원서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써볼까 해요.

지난 글 '영어가 인생에서 잡는 발목에 대해'

<https://orbi.kr/00014465592>

보다는 좀 더 개인차가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참고만 해주시고, 항상 판단은 본인이.

또한 이 글은 전반적으로 '문과'에 한정되며

(필자가 보고 겪은 게 문과이므로..)

고사국, 의치한 같은 특수과는 제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배울 게 많은 사람이고,

그냥 지나가는 형이 하는 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가는 형은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열심히 준비)

근데

외대 통번역학과

영어 강사 및 저자

서울대 경영대학원

통역장교

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임을

진로에 관한 글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밝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학생, 조카, 아는 동생 누구든,

과(보통은 경영경제)를 보고 갈까요,

아니면 낮은 과라도 더 높은 대학을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의 예외 없이,

‘대학’이라고 답할 겁니다.

이유를 몇 가지 서술하자면,

1. 대학을 들어가는 20살 전후 수험생은

아직 본인이 뭘 하고 싶은 지 잘 모른다.

근데

그거 알아요?

30살 전후 취준생들도

본인이 뭘 하고 싶은 지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 20대는 내가 30, 40대에 뭘

하고 살고 있을지, 살고 싶은지를

찾아가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고,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서,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 공부를 하며

이것저것 탐구해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한 학부 전공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나도 편협한 시각입니다.

제가 보는 질문 중

가장 어리석은 질문 중 하나가

(어리석다고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대학 ~과 나오면 뭐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가면 ‘일반적으로’ 뭘 하냐...가

묻고 싶은 것이기는 할 터인데,

참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가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하나를 알면

뭘 하나요.

‘본인이 하는 걸 알아야지.’

좀 더 넓은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교육과 가면 무조건 영어쌤??

경영, 경제 아니면 취업도 못하고ㅠㅠ?

언론정보학과 가면 무조건 기자??

사학과 가면 뭐 백수??

...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고3 때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미친 듯이 준비하던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서 체육선생님 하게?

체육선생님 하는 거 아니야?”

고3인 그 당시의 저에게도,

저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 및

어른들이 조금 ‘한심’해보였어요.

내가 아는 '오정연 아나운서'는

서울대 체교과가 아니었던가...?

내가 수소문해 알게 된 체교과 3학년생은

왜 생명공학과를 복전하며

의료 분야 진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서울대 체교 출신의 우리 학원 원장님은

왜 체육교육이 아닌 재활 쪽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며

하버드 의료, 사회 복지 쪽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저만 해도, '학교 선생님' 하계?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

가서 경영학과 복수전공해서,

스포츠마케팅, 에이전트 쪽에서

일하고 싶어.

(당시 톰쿠르즈 주연의 스포츠 에이전트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 빠져 있었음)

물론,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가면,

1/3, 많게는 절반,

학교 체육선생님을 합니다.

(당시 실제 재학생 쌤들한테 들은 말)

그리고 본인의 과와 진로를 직결시킨

너무나 멋진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참... 적지 않나요?

일반적인 생각, 즉,

체육교육과 가면 체육쌤 하는 거 아냐?

에 맞으려면

7, 80프로는 돼야 할 거 같은데.

나름 일반적인 문과에 비해

조금은 특수한, 사범대라는 대학 내에서도

체육이라는 한정된 전공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경영, 경제, 인문, 언어는

어떨까요.

2. 학부 수준의 문과 공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말기에는

깊이가 너무나 얕다.

여기 대학생 분들도 계시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3학년 쯤 되셨다면,

1, 2학년 때 공부한 전공 공부

기억이 얼마나 나는지.

...

떠오르는 게 많이 없을 겁니다.

학점이 좋더라도요.

또한, 경영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등등... 각 문과 학부 전공의

졸업 인증 학점인 50~70학점 정도의

‘공부량’을 실제로 ‘공부만’ 한다면,

그 공부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른 교양 및 이중, 복수전공 때문에

4년 이상이 걸리지

저 내용을 공부만 한다면 1년 정도,

에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본인이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오게 되면

더 여실히 느낄 겁니다.

그만큼 전공 공부의 양과 수준이 많고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1번과 연결해서,

본인이 아 이 전공은 그래도,

내가 '재미있게' 공부해볼 수 있겠다

정도가 된다면,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공부 및 활동을 통해서

본인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하세요.

3. 대학 가면 과 간의 점수 차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제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긴 하지만,

저는 11학번 당시

외대에서 그래도 가장 밀어준다던

영어통번역학과를 갔습니다.

그것도 4년 입학 장학생으로 갔어요.

1학년 때 기억은 납니다.

어디 다른 과 선배 만나서

영어통번역학과라고 하면,

오 공부 잘했네,

했던 기억이.

그 후?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대학 재학 시절에도,

제가 혹은 우리과 누구든지,

상대적으로 입결이 낮은

특수어과나 사범대 외대생들을

동아리나 팀플에서 만났다고 해서

‘아니 여긴... 나보다 수능 점수가

많이 낮은 분들이잖아!’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외대생’이에요.

같은 학식을 먹고

같이 축구 농구하고

같이 기타 치는 동아리 하고

벚꽃 피면 같이 경희대로 놀러가는.

특히 졸업한 이 시점에 더욱 더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세요.

그 쯤 되면, 그냥 저 ‘어디 대학’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00대’ 나오셨어,

인 거지,

무슨 뭐 과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지도 않아요.

부모님 세대 그 전공은 거의 이름도

다 바뀌었을 거고요.

저만 해도,

3학년 때인가

서울캠퍼스 영어통번역학과를

학교에서 없앤 기억이 나네요 ㅎㅎ

물론 EICC로 계승했습니다만,

영어통번역은 외대 내에서 그냥

독보적인 입결을 내던 곳이고,

이 위치 자체는 'LD'에 계승을 하고

과를 없앤 거죠.

그 때 우리과 학생들 데모를 얼마나 했던지...

특히 정말 연대 심리학과 정시로 붙고 온

친구 있었는데 얼마나 한탄을 하던지...

이 때 느꼈습니다.

아,

과라는 건

대학이 사리사욕에 따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구나.

과 하나 만들고 없애기

어려운 거 아니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연대 경영학과도,

스포츠레저학과도,

간호학과도,

신학과도,

(no offense)

그냥,

같은 연대생입니다.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제 자존감, 자존심 때문에

소개할 때 제대로 하려면

혹 저자 소개에 쓰려면

굳이

외대 영어통번역과 4년 장학생

이렇게 길게 해야해요.

제가 그냥 고대 영교를 갔다면

그냥 고대 영교라고 쓰면 되겠죠.

4. 전반적으로 본인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죠.

더 높은 대학에 간 친구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에 간 친구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재능이든지 간에

전자에 더 뛰어난 친구들 비율이

많을 거라는 데에는

의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리, 성실성, 끈기, 노력, 집념

타이밍, 실행력, 정보력, 기민함, 영리함..

뭐든지 말이죠.

자 내가 우리 대학에서 가장 잘나가는

과에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저러한 능력들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겠네요.

반대로 내가 우리 대학에서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과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오,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은 과에 온 친구들이고

그만큼 나보다 배울 게 많은

친구들이겠네요.

아무리 대학연합동아리가 있다지만,

결국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같이 하는 건

같은 학교 친구들입니다.

자.. 대학은 영어교육과로 왔는데

대학에 왔으니 지성인으로서

경제 공부 좀 하고픈데

교내 학회 좀 들어볼까?

서울대 영어교육과라면,

그 중앙경제학회에,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의대(없을라나 이걸 사실 몰겠음)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기계공학과

등등이 같이 공부할 것이고,

고려대 영어교육과라면,

그 중앙경제학회에

고려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의대(없을라나 이걸 사실 몰겠음)

고려대 물리학과

고려대 화학공학과

(역시 no offense...!)

가 같이 공부할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자 3. 4학년이 되었어.

학교에서 취업 준비 스테디를 구해볼까?

역시 위와 같은 구성원.

후.. 아무리 생각해도 난 창업스타일이야.

대기업의 부속품, 노예가 되긴 싫다구!

요즘 코인 거래소가 잘나가던데

관련 기업을 창업하겠어.

근데 내가 서울대 영어영문이야.

창업 멤버를 구할 때

서울대 컴공, 서울대 경영, 서울대 디자인에서

같이 할 사람을 찾기가

타 대학 출신일 때 보다

훨씬

수월하다고요.

5. 경영, 경제여야 취업을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큰 떡밥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연고인문을 안 가고 서강경영을 가는 이유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취업 때문에 경영 경제를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a. 기업에서 하는 거 관련된 걸 배우니까

b. 기업에서 경영 경제를 많이 뽑으니까

여기서 a가 헛소리라는 건

취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기한 2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취업 준비하면서 이미 학부 때 공부한

경영학은 대부분, 씨먹을 정도로 기억나는 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경영학은 '학문'이고,

실제 기업에서 배우는 건 '실무'입니다.

엄연히 달라요. 관련은 있겠지만.

또 기업 분야 및 규모에 따라

하는 일, 쓰는 용어도 천차만별이라

경영학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공부

써먹힐 일도 별로 없어요.

‘익숙한’ 정도랄까.

그저 각 기업마다 몇 주간 진행되는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누가 더 빨리 배우느냐.

그리고 본인 배치된 지사에서

또 처음 반년, 1년간 누가 더

빨리 배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공 관계 없이,

‘실무에 푹푹하면’ 최고.

b를 보자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기업에서 채용할 때 아예

경영경제 직군을 따로 뽑기는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만큼 전국의 경영학도가 모두 지원한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파이가 클 뿐이지

경쟁률이 작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고요.

사실 기업은

여러분이 무슨 과 나왔는지

크게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거라곤

(문과 기준)

성실한가(기본적 학점)

똥똥한가(자소서, 면접에서 드러남)

-> 말귀를 한 번에 잘 이해하는가

잘 융화, 조화되는 사람인가(면접)

-> 말귀를 잘 듣고 행하는가

언어를 잘하는가(제발 영어 먼저, 그 담 제2)

정도가 핵심입니다.

이 정도를 충족하는 사람이면,

들어와서 일도 금방 배울 거고

좋은 성과를 낼 거거든요.

‘취업’이라는 걸 생각해보니,

저는 현재로선 ‘취업’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취업하느니 그냥 동네에서

작은 영어교실과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지,

라는 사람인데,

그래도 취업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일해보고 싶다는

기업은 있습니다.

구글.

구글에서 감사히 뽑아주면

한 번쯤 일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구글도 너무 거대해져서

슬슬 부속품 느낌이 너무 강하다.

는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이 구글을 생각했을 때

이미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누가 있을까.

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눈여겨 본 두 분이

구글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원씨.

구글 미국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키김씨 (현재 인스타 팔로우하며

많이 영감 받는 중 ㅎㅎ)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이기에 지금은

지사를 옮겼을 수도 ㅇㅇ)

두 분 전공이 뭔지

알고 있나요?

김태원씨는 고대 사회학과

미키김씨는 연대 역사학과입니다.

김태원씨는 특히,

소위 '운인 거 같다'는 국내 취업시장에서

국내 대기업도 다수 붙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분의 책을 읽어보면 다 나오지만,

이러한 '문사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자기 능력이고, 이를 오히려 높이 쳐줍니다.

그만큼 인턴 및 공모전이 활발했다는 거니까.

두 분 다 당연히, 공모전이라든지 관련 인턴을

학부 때 성실히 하였고, 학점도 챙겼습니다.

두 분 다 영어를 잘하십니다.

미키김씨는 미국에 살다온 걸로 알고있지만,

김태원씨는 순수 국내파고,

책을 보면 실제로

‘친구가 약속에 늦어도 나는 별로 아무렇지 않다.

영어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되니까, 시간이 안 아깝잖아’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이거 실제로 저도 그럼 ㅋㅋ)

그리고 서류 통과 후 면접에서 물어보겠죠.

자네는

사회학과(역사학과)인데

여기 마케팅, 인사, 영업, 재무 등등..에

왜 지원했나?

여기서 역시 본인이 공부한 내용과

자신의 직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연결시키는 것이

능력이겠죠.

사회학과를 예로 들면,

‘제가 ~~한 공모전을 했을 때

해당 주제에 관해 현재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마침 전공 공부에서 다루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여 연구한 결과

이러한 니즈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영학적인 시선보다는

사회학적인 시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비슷한 대답을 김태원씨가 했던 거 같고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할 거 같네요.

역사학과라고 다를 거 없겠죠.

오히려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기업의 흥망성쇠가 다르지 않다.

그러한 것들에 관해 많이 연구하였고

그 속에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있지를

통찰하는 기회가 되었고

1,2,3차 산업 혁명이라는 과거를 보니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식견도 생겼다 등등...

말은 만들기 나름이고,

how to connect them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이

대학 4년 간 해야 할 일이겠죠.

마무리하며,

세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님이 취업, 고시, 창업, 작가, 강사,
교수, 변호사 뭐를 할 지는 아무도 모름
2. 문과 학부 공부는 깊이가 없기에,
그 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함
3. 전공이 그래도 관심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
이라는 전제 하에, 대학을 높이자

정도 됩니다.

역시 정답이라는 건 인생에 없고,

본인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정말 적어도 4년 후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을 자신이 있는

명확한 꿈이 있다면

그 직결되는 전공으로 쓰시면 됩니다

대학 상관 없이.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사람들과

자신의 꿈을 찾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서 안정 하나는 꼭 쓰시고

상향으로 쓴 게 찝찝 붙길 바라고

대학에서 젊음을 마음껏 누리시길.

모두 새해복많!

질문 있으면 댓글 줘요 ㅎㅎ

출처: 유니고

<http://cafe.naver.com/letsgotouni>